



Market Index / 14일

코스피지수

▲

4723.10
+30.46

코스닥지수

▼

942.18
-6.80

유가(WTI, 달러)

▲

60.93
+1.61

환율(원)

1USD
100원1500.60
943.211449.00
910.771EUR
1CNY1751.88
222.131683.52
200.99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건설업은 뒷걸음

취업자 수 40만3000명… 3년만에 증가 전환

건설업 고용 7000명 ↓ 업종별 온도차 극명

지난해 제주 고용시장은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소폭 늘고 고용률도 개선됐다. 다만 건설업 고용이 큰 폭 줄어드는 등 업종별 온도차를 드러냈다.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연간 고용률은 69.8%로 전년(69.3%) 대비 0.5%p 인트(p) 상승했다. 고용률은 2023년(69.2%)부터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41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0.5% 늘었다.

지난해 실업률은 2.2%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만5000명으로 3000명

(1.7%)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고용의 뒷걸음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간 건설업 취업자는 2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7000명(23.9%) 감소하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10만명, +2.2%), 전기·운수·통신·금융업(3만9000명, +15.2%)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가 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9000명(14.6%) 늘어났고, 일용근로자는 1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5000명(26.4%) 감소했다. 자영업자도 1000명(1.3%) 줄어든 1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과 중장년 층은 감소 흐름을 보인 반면 고령층은 증가세가 뚜렷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고, 30대 취업자 수는 6만5000명으로 2% (1000명) 줄며 각각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40대(9만2000명)도 3.5%(3000명) 감소했고, 50대는 9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0.5% (1000명) 줄어 1년 만에 다시 9만명대로 내려왔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7.9% 증가한 10만5000명으로 처음 10만명을 넘어섰다.

오은지기자 eojoh@ihalla.com

중·일 관계 악화 제주 준모항 운영 변수로 일본 기항 제외 등 기존 운항노선 조정

최근 중·일 관계 악화 여파로 제주 강정크루즈항을 거점으로 한 준모항 운항 노선에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당초 올해 준모항 운행은 제주(준모항)~일본(기항)~상하이(모항)~제주(준모항)를 잇는 4박5일 일정의 노선이 64항차(3200명)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중·일 관계 악화 후 제주(준모항)~국내(부산 등)~상하이(모항)~제주(항공)로 일정이 조정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강정항을 준모항으로

로 중국 상하이~제주~일본을 잇는 크루즈 운항을 시작한 중국 크루즈 선사인 아도라크루즈의 아도라매시티호가 일본에 기항하지 않기로 하면서 준모항 크루즈 운항 주관 여행사가 올해 1월부터 기존 제주에서 출발·도착하는 상품 판매를

보류하고 대체 상품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제주에서 승·하선이 가능한 준모항을 운영하고 있다. 13만5000t급의 아도라

매시티호가 모항인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강정항(준모항)과 일본 기항지를 연계하는 형태로 운항해왔으며, 이탈리아 선적의 코스타 세레나호도 3회 준모항 시범 운항에 나서며 지난해 제주 준모항은 총 28 항차에 걸쳐 2161명(도민 701명+도외(외국인) 1451명(221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크루즈선사·여행사와 함께 대체상품 모색 등 보완책을 협의하는 한편 선사 다변화를 위한 논의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제주에는 총 348회(제주항 137회, 강정항 211회)의 국제크루즈 기항이 예정돼 있다. 오은지기자

악취 저감·AI 탐지… 축산 신기술 보급 추진

31일까지 참여 농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축산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국비 사업 4건을 확보하고, 총 2억9000만 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동은 제주만감류연합회 수석 부회장은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은 만다린과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며 "농민들이 고품질 만감류 생산에 집중하고, 농협이 유통을 맡으며, 제주도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만감류 농업인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일부 중간 상인

들이 제주 만감류를 낮은 가격에

구매하려고 만다린을 공포 마케팅

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훈들

리지 말고 고품질 생산에 전념해

달라"며

"수급관리 '감귤위원회'

에서 지역농·감협과 협력해 매취사

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등 농가

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업인 단

체와의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참여할 농가 1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축산생명연구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친 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축산생명연구원은 향후 중간 평가와 결과 평가를 실시해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 신기술이 확대 보급돼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제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신기술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감귤 모집

▲ 유라조생 2년생 4년생

▲ 천혜향 2년생 3년생

▲ 궁 천 3년생

·황금향·레드향·한라봉
그 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최고경력·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

감귤 신품종 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 임대만료로 특별 분양

유라조생, 레드향, 카리향

(3년생 분당 10,000원 100% 이식묘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온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 가능

유라조생·카라향·레드향·황금향·천혜향

·한라봉·하례조생·원터프린스·하귤

·오하라베니·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종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품종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 수 없는 맛



삼육식품

www.sahmyook.co.kr

Sahm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